

시론

금강산 가는 길

어린 시절 자주 불렀던 동요 가운데 가장 생생한 동요중 하나가 바로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봉. 불수룩 아름답고 신기하구나"이다. 나는 아직도 이 노래를 가끔씩 혼자 불러보곤 한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우리는 긴 세월동안 다만 깊은 염원으로만 그리워하고 있다.

그 땅을 밟을 수 있구나

이보다 더 좋은순 없다

생각할수록 뼈가 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시절 그때에도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숙원이라고 배웠었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서 서로 손잡고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찾아 가자고 그토록 외쳤었는데 그때의 그 소녀들이 자라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다시 그 또 그만한 딸들이 자라서 그 노래를 배우는 동안에도 우리는 금강산을 아직껏 실체로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9월이 되면 그곳을 갈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꿈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린시절 골목길에서 해가 저물도록 고무줄넘기를 하면서 뛰이 터져라 불렀던 그 금강산을 이제 실제로 이 두발로 디딜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무려 반세기의 시간이 걸린 했지만 그 후과 그 바위와 나무들과 그 비경을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꿈이 아닐까 그저 벽차기만 하다.

얼마전 정주영씨가 소 5백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뛰기 시작한 가슴은 이제 더욱 확실한 기대로 부풀기 시작했다.

금세기 지구상에 단 하나 밖에 안 남은 민족분단의 벽을 넘어가는 이 박 이벤트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부자도 때로는 저토록 멋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부자는 인간으로서 소유가 넘친 나머지 자칫 그 삶조차도 물질이나 소비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얼어붙은 단절의 옆구리를 허물고 유란산을 띄워 금강산을 유망한다는 그 계획은 어느 문학작품보다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데가 있다. 정말 돈이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위대함이 있다는 생각이 해보았다.

말이 쉬워 실천만이지, 실천만들은 괴를 나눈 육친들을 지적에 두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지적에 두고 꿈에서조차 소식을 모른 채 기막힌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 했던가.

결국 우리는 금강산을 시작으로 그리운 사람들이 맘껏 함께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 그러기에 이 첫발이 더욱 소중하고 뜻깊다는 생각이 든다.

경전중의 경전으로 <금강경>을 들듯이 산중의 산이라는 명상 금강산의 이름은 경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민족의 영산은 원래부터 불교와는 별래야 할 수 없는 불교의 영지이기도 하다. 팔만 구암자마다 고승 선사들의 선기가 펼쳐져나오는 고승의 자취에 금강산이 빠진 적이 있었단가. 아울러 시인 묵객들의 영감이 넘치는 곳 또한 이곳이 있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구비 구비 계곡마다 법문 자취요, 속속들이 선승들의 수행 흔적이 그 아름다운 비경속에 함께 살아있는 곳. 과연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며 금강산을 정말로 돌아볼 수 있겠나.

자난해 나는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세계 35개국에서 온 작가들 앞에서 서서 민족 분단의 기막힘을 시로 읊으며 온몸으로 운 적이 있다. 모두가 성한 다리로 세계를 활

보하는 이 시대에 유독 나 혼자만 허리 찢어온 불골로 서 있다는 생각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사색을 내뿜었다.

너무 조급한 흥분과 기대는 금불이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금강산의 솔바람 소리가 <금강경>의 한 구절처럼 내 가슴에 흐르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이 가을, 이 땅의 한 일원으로서 금강산에 가서 세계를 향해 진실로 목이 개개 아름다운 시 한편을 읊고 싶다.

문정희 (시인)

문정희 (시인)

문정희 (시인)

문정희 (시인)

문정희 (시인)

열린마당

사회복지공동모금법

7월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하 공동모금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종교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공동모금' 하는 것을 배대로 한 이 법의 '시행 유보'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강행의사를 확고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수교장로회 등으로 이뤄진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6월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모금법'의 폐지 혹은 시행유보를 촉구했다. 종교계는 지난해 3월 '공동모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적법성과 시행가능성이 결여된 미비한 입법"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제정은 사회복지관계자들의 10년 숙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6월25일 열린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회의의 기자회견 모습. <평화신문 제공>

비인가 시설 소외...재원 배분 불투명

종서스님 <조계종 사회국장>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의 모금조직, 지역공동모금회의 독립법인화 문제, 정부의 개입문제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정부 관련부처 및 민간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종교복지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에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요약하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모금을 통한 배분의 문제이다. 공동모금이 실시되면 개별적인 기부금 모금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수의 비인가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 공동모금회를 이끌어갈 전담 기구의 투명성 문제이다. 공동모금 실무업무를 기존의 사회복지단체에 맡길 경우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

의 배분이나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동모금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할 경우 예산의 증가로 인한 부담, 준비기간의 장기화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공정하게 민간사회복지단체에 전액 전달되는가의 문제이다. 과거 '이웃돕기추진운동본부'에서 조성했던 기금의 배분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 공동모금법으로는 이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동모금법이 나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어느 특정단체 또는 행정기구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외국 사례를 검토·분석·연구하여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 신도를 통한 복지기금을 인정해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창구 단일화로 복지성금 효율운영

이상민 <복지부 복지지원과 사무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른 '공동모금회'는 국민이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의를 모아 국민의 뜻대로 집행하는 봉사조직이다.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금캠페인을 함으로써 모금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복지재정이 절약한 소규모 시설에 모금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배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공동모금회가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점차 보완해 갈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을 요하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로 공동모금을 하면 종교단체의 후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나 후원금은 기부금모집규제법이나 공동모금법과 관계가 전혀 없다. 공동모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종교단체나 개별모금단체는 종전과 같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모금

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모금회와 똑같이 기부금모집규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모금을 할 수 있다.

셋째로 공동모금법은 국고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현행법에서도 소규모 미인가시설에 대한 공동모금재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공동모금법이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 소규모 시설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배분기준에 포함하도록 사회복지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종교계와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동모금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모금법의 적용범위를 복지관련분야까지 확대하고 △배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모금에 대하여 기부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회복지자를 위한 모금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모금경비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하는 대신 동경비사용내역을 공개토록하고 △사회복지자를 위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전액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세면감규제법 등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 민간참여 확대 국민성금 효율적 관리 유도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전국 및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해 모금사업과 배분을 맡도록 했다.

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 능력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공동모금기금의 수혜단체들이 창의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등이다.

'공동모금제도'는 영국에서 1980년대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이중 구조' 또는 '수혜 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후 1985년 미국 보스턴에서 제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자선단체들을 돕기위해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

현재 3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모금제도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민간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생적 복지사업 위촉 가능성 종교계 법 시행유보 등 촉구

종교계가 공동모금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까닭은 법의 추진과정이 관주도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복지사업을 위촉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금활동이 전국 및 광역단체별로 이뤄지면 현재 종교계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상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인가시설이란 점도 문제다. 공동모금법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은 당연히 인가시설에 한정되며,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종교계는 "현재 절반 정도의 복지시설이 미인가이며, 미인가 중 90%가 종교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복지시설의 크기와 운영자의 자격증 유무를 따져 지원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교아 등을 소규모로 보살펴 온 불교계의 경우 미인가시설이 적지 않아 IMF사태로 가뜰이나 어려운 복지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전망이다.

종교계는 이밖에 △공동모금 설립위원 및 임원(종교계는 2인)의 대표성 문제와 △지원·연원·학원에 의한 불공정 배분 문제 등의 이유로 공동모금법의 시행유보를 주장해 왔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nia shopping mall. 주문방법, 전화번호, 배송 정보.

불교 티셔츠. 전신한 동자의 환은 새상 비늘기, 연꽃나 물 등 본지에서 제작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티셔츠. 여러 수 선택이 가능한 티셔츠로 원산지 중국 제작이 가능하며 사할 및 단체할 인수가 가능함.

대나무 잔. 원천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대나무 잔. 미디엄 기공 하므로 크기가(중)는 알맞아 담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맛이 일품입니다. 크기: (원세로)5-7(저를) = 가격: 넓게 ₩ 8,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리도 동양의 적남을 구제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인생을 바탕으로 신임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복을 베풀는 다름과 같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귀중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마음 가지 오진 재난을 피하고, 몸, 돈, 지위, 명예까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을 얻습니다. 이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사찰에서부터 기원해 관세음보살은 3가지의 모습으로 표현 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리도 동양의 적남을 구제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인생을 바탕으로 신임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복을 베풀는 다름과 같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귀중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마음 가지 오진 재난을 피하고, 몸, 돈, 지위, 명예까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을 얻습니다. 이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사찰에서부터 기원해 관세음보살은 3가지의 모습으로 표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속 수공예 액자. 지경보살에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좌소에 친해 보셨을 부다피아니(문양의 은빛 지평, 경강, 재로 수형의 수형한 진의 등의 힘을 중전시키는 다라니)를 염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화)하여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재료: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가격: ₩ 4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로 불산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를 일정한 부위의 합성염과 신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뜨겁고 유언하여 지어, 2. 목에 거시면 목이 뜨겁고 유언하여 지어, 3. 어깨 부위에 올리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어, 4. 팔목이나 팔에 걸치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을 곧 도울이 되어, 5. 피로가 탈진 같으면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35,000

반아심경 향로. 청동제 등으로 향로 주위에 반아심경 경전 문구. 가격: ₩ 2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리도 동양의 적남을 구제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인생을 바탕으로 신임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복을 베풀는 다름과 같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귀중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마음 가지 오진 재난을 피하고, 몸, 돈, 지위, 명예까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을 얻습니다. 이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사찰에서부터 기원해 관세음보살은 3가지의 모습으로 표현 하신다는 것입니다.